

헝가리 아카시아 임업시찰기

한국아카시나무연구회 회장 임경빈

헝가리는 우리가 알고 있기에 도 100년 이상을 두고 아카시아연구가 세계적으로 앞서있고 임산업으로서 또 밀원자원으로서의 아카시아 이용이 부러운 경지에 있다.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자원을 어떻게 개량 육성해야 하며 이용의 방도를 어떻게 강구해야 할 것인가를 고려할 때, 아카시아 선진국 헝가리의 사정을 시찰한다는 것은 아주 긴요하다. 이번 헝가리 임업연구원의 초청을 통하여 우리의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한국측의 시찰단원은 본인과 함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이경준 박사, 한국양봉협회 양봉산물연구소 손재형 소장 등 3명이며, 시찰 일정은 5월 31일 김포공항을 떠나 6월 11일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통해 귀국하기 까지 헝가리의 6개 도시(부타페스트·괴돌로·푸즈타바츠·구스·캐츠캐미·미케부타)의 임업연구기관과 시험조림 및 영립현장을 두루 시찰하고 귀국길에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식물원 시찰로서 열흘간의 시찰일정을 끝내고 귀국했다.

이번 시찰에 있어서는 헝가리 레이박사의 용의주도한 사전계획에 힘입어 헝가리 관계당국과 원만한 협조가 잘 이뤄지고 짧은 방문 일정기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헝가리의 아카시아연구를 집약적으로 알아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준데 대하여 깊은 감명을 받았다.

특히 예정된 시찰일정에서 친절한 안내와 조금도 빈틈없이 설명을 해준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

우선 이번 시찰에 관한 간단한 귀국보고서 형식을 빌어 여러분의 이해를 드리기로 하고 후일 더 상세한 것을 다시 보고하기로 하겠다.

5월 31일 오후 2시경 김포공항을 떠난 우리 일행은 약 14시간의 비행을 거쳐 오후 9시 40분경(헝가리 현지시간) 부판 가슴을 안고 부타페스트 공항에 도착했다. 그날은 5월 31일 토요일. 무척 늦은 밤이었지만 먼 공항까지 주디 연구관(생태학 전공)이 마중나와 우리를 반겨 주었으며 투숙할 호텔까지 인도

해 준 것은 그들의 변함없는 친절의 시작이었다.

다음날 6월 1일은 일요일이라, 우리는 부타페스트 시내의 나무와 숲을 시찰하기로 하고 아침 일찍 호텔을 나서 시내로 나왔다. 처음부터 접한 우리의 감탄은 아름다운 다뉴브강가에 서 있

시아가 헝가리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들은 이미 아카시아를 그들의 고유 수종으로 취급하고 있다. 통계에 있어서도 아카시아를 외국수종으로 넣어서 셈하지 않고 있다. 이점은 우리와 크게 다르다.

헝가리 임업인 가령 래디박사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여기에 길을 터준 것이 헝가리의 아카시아 목재 자원이다. 헝가리는 아카시아의 나라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니다. 그리고 아카시아 목재는 어느 수종의 목재보다 뛰어난 재질을 가지고 있어서 높은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다. 그래



부타페스트 시내의 루즈벨트 광장에 서있는 헝가리에서 가장 오래된 수령 약 2백년 가량의 아카시아 고령목이다. 왼쪽으로 기울어져 쓰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버팀목으로 떠받쳐 놓았다.

헝가리도 올해 아카시아꿀 흥작

는 국회의사당 주변이 온통 아카시아 노목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국회의사당으로 이어지는 길 양쪽에 아카시아 가로수가 두 줄로 심어져 있어 그 아름다움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따지고 보면 아카시아는 헝가리로 보아서는 미국으로부터 도입된 수종인데 미국의 나무로 헝가리의 역사를 장식하고 있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뒤에 우리가 알게된 일지만 헝가리의 임업인들, 또 국민들까지 포함하여 그들은 아카시아를 미국의 나무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17세기 초에 아카

시아는 헝가리의 수종이고, 이제는 미국이 우리의 아카시아를 도입해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주인과 객이 완전히 전도되고 있었다. 나는 여기에서도 그들은 무척 현명한, 그리고 합리적 사고를 가진 국민이로구나 하고 반성을 했던 것이다.

헝가리가 아카시아로 입국(立國)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이러한 사고의 전환은 옳다고 본다. 지금 열대목재가 환경운동의 일환으로 생산에 제한을 받고 있는데 유럽 여러나라는 목재 수요를 어디에서 충족시킬 것인가에

서 헝가리의 아카시아 목재자원은 서유럽 국가의 목재수요 시장으로 개척해서 앞날이 탁 트여 있다고 했다. 부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또 헝가리는 물론 서유럽 국가의 사람들은 벌꿀을 많이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곳에 머무는 동안 식탁에 벌꿀을 많이 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침에 나오는 식빵에는 아카시아꿀을 발라 먹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부타페스트는 케치케미의 시장이나 노점에는 벌꿀이 있고, 벌꿀을 다루는 식품점이 많아

나도 몇가지 사왔지만, 요컨대 그곳은 벌꿀 냄새가 생활속에 물씬 풍기는 곳이었다.

이러한 식생활의 내용은 아카시아가 많은 꿀을 생산해 내는데 있어 헝가리 임업연구원에서는 벌꿀을 더 많이 생산하고 또 화기(花期)가 긴 아카시아의 품종을 선발하고 육성하는 데 성공하고 있었다. 벌꿀생산을 위한 아카시아의 품종은 흰꽃을 피우는 목재용과는 달리 붉은 꽃을 피우고 있다는 데 또다른 감명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열심히 아카시아꿀 생산에 관한 연구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다. 그 내용은 간단하지 않기에 이곳에서 펼쳐볼 수가 없다. 후일 다시 소개할 기회를 가져보도록 고려하겠다.

또 한가지는 이번 방문에서 안 일이지만 이곳의 연간 강수량은 500mm 정도의 강수량이 적은 지역인데 올해는 아카시아 개화기에 많은 비가 내려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카시아꿀이 최대 흥작이었다.

이번 시찰을 통해서 우리는 아카시아에 관한 새로운 사실을 많이 인식할 수 있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의 진의를 새삼 깨달게 되는 것 같았다.

헝가리의 아카시아 숲 조성에 관하여, 육종의 방법과 그 성과 그리고 종자수집과 실생문 양생 기술, 무성번식(삼목과 접목)의 기술, 조림지 식재기법·관리, 무육벌채, 채종림 등에 관한 기술을 면밀히 알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이 물론 그대로 우리에게 모조리 적용되리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의 아카시아를 재 인식하고 이것을 귀중한 유용자원으로 만들어 가는 데에는 어떠한 접근이 있어야겠는가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헝가리의 아카시아는 부러운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문제를 아시아의 헝가리가 되어 보자는 꿈을 꾸어 보게 된다. 그들은 아카시아로 한없이 복받은 나라였다.

끝으로 우리를 도와준 그들의 친절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우리 여행을 지원해 준 한국양봉협회에 깊은 사의를 드린다.

효능이나 기초성에서 자연화분을 능가하는 신제품!

락터알부민대용화분

꿀벌표 Lactalbumin Pollen Substitutes®
1년묵은 자연화분보다 봉아 육성면적이 월등한 락터알부민에 자연화분 12%와 비타민C 및 천연칼슘을 첨가하고 특히 유기산을 배합하여 육아에 절대 필수인 육아봉의 봉유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이상적인 대용화분이다.

강원밀봉원

☎ 220-031 원주시 학성1동 436-4 (역전)
☎ (0371) 42-3737 · 45-3737 FAX 731-3737

영업안내

존경하는 양봉가 여러분. 금년에도 우수한 벌꿀을 다량 생산하셔서 높은 소득을 올리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수입개방시대의 벽을 넘어 시려면 저희 회사를 꼭 찾아주시기를 거듭 원하는 바입니다. 힘껏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 우량 벌꿀 고가 연중 매입
- 한국양봉협회 봉인검사품
- 벌꿀 규격드럼 (중량 약 33kg 최고품)
- 벌꿀 규격말통 (실량 25kg 들이)
- 벌꿀 규격병 (신·구형)

한국양봉진흥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희철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3동 441-11.
☎ (02) 481-3697~8. (夜) 441-2780, FAX (02) 442-9426
경남지역 연락처 및 집하장 : 경남 산청군 시천면 덕산리
「영농법인 지리산 벌꿀」 ☎ (0596) 73-7366

